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0주일

하느님, 반대를 받는 표징인 성자의 십자가를 통하여,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니, 사람들이 진리와 은총을 다시는 거부하지 않고,
시대의 표징을 깨달아,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소서.

8월 기도지향

-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가정
- 박성기(모이세), 김정옥(수산나) 가정

주간 전례

- 8/20(화)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
- 8/21(수)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 8/24(토)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셀 기도 주일 팀

- 목주기도의 모후 : 화요일 오후 8시, 이영민 엘리사벳
 - 평화의 모후 : 수요일 오전 11시, 정선식 베로니카
 - 자비의 모후 : 주일 오후 1시, 김인자 글라라
- ☞ ‘셀기도’는 참된 신심을 키우는 작은 모닥불이 될 것입니다.

평협회의

- 일시 : 8/18(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구역회의

- 일시 : 8/25(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 ☞ 9월부터 구역모임 있습니다.

의무축일

- January 1, the solemnity of Mary, Mother of God
 - Thursday of the Sixth Week of Easter, the solemnity of the Ascension
 - August 15, the solemnity of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 November 1, the solemnity of All Saints
 - December 8, the solemnit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 December 25, the solemnity of the Nativity of Our Lord Jesus Christ
- ☞ 보편교회법 1246조 2항에 근거한 미국 주교회의 결의(1992년)

기타

- 저희 한인 공동체의 친교와 미래를 위해 주일 미사만큼은 본당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나 하나뿐이야’하고 소홀히 한다면 공동체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 9월부터 ‘로렌스 미사’와 ‘맨하탄 미사’가 있습니다.
-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에서 9월24일부터 10월3일까지 고국 방문을 계획합니다. 문의 ☎ (913)897-5365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4	211	167/166	478

주일미사 복사

금주	안광희(크리스토퍼), 이원준(요한)
차주	안광민(야고보), 정예찬(미카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카타리나)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박정옥(수산나) 박세라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임지현, 김정애
차주	김경희, 안혜진, 김인자, 정연숙, 한순례

헌금 봉사자

금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차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드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8/04	78명	356불	840불
08/11	95명	425불	2,880불

- ☞ 소프트볼 대회를 맞아 안병환 발렌티노 형제님의 찬조가 있었습니다.
- ☞ 골만 형제님이 저희 공동체에 감사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 재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모든 이가 하느님을 알고 찬미할 수 있도록 청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 정의의 불이 타올라 온갖 불의와 잘못이 그 불에 타 없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성화해설

성령 강림(부분)
(엘 그레코, 1596-1600년, 캔버스에 유채,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루카 12,49)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알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참 신앙을 가진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주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예레 38,4-6.8-10 < 어쩌자고 날 날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예레 15,10). >

화답송 :

어 서 빨 리 오 시 어 주 님 저 를 도 우 소 - 서

-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만 주님께서 이 몸을 굽어 보셨네. 부르짖는 내 소리를 부르짖는 내 소리를 들어 주셨네. ◎
- 죽음의 구렁에서 나를 꺼내 주시고 진흙의 수렁에서 나를 꺼내 주시고 바위 위에 든든히 내 발을 세우시며 내 걸음 힘차게 해 주시었네. ◎
- 당신께서는 내 입으로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송가를 부르게 하셨네. 많은 사람 보고는 두려워하며 주님께 믿음을 갖게 되리라. ◎
- 저는 가난하고 불쌍하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를 돕고 구하시는 당신이시오니 주 저의 하느님 더디지 마시옵소서. ◎

제 2 독서 : 히브 12,1-4 <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 루카 12,49-53 <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

세 마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 12,49)



월평균 최고기온이 29.5℃인 8월에 듣는 복음 말씀치고는 너무 뜨겁지 않나요?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루카 12,50)라고도 하시니 시원한 물세례를 상상하며 불이 주는 뜨거운 느낌을 떨칠 수 있을까요? 월평균 강수량이 348mm나 되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빗물로 불벌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거짓과 위선과 죄악을 태워버리고 순수한 신앙을 가려낼 수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로마 6,3)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애매한 태도로 양다리를 걸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신앙인들에게 분명한 입장과 확고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시메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며 “반대를 받는 표징”(루카 2,34)이 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고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에 등장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간교한 대신들의 입장과 완전히 대치되고, 게다가 매국적으로 들릴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고 치드키야 임금(기원 전 597-586)에게 주님의 말씀을 조금의 가감도 없이 고함으로써 죽을 위험을 자초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는 말씀이,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 서울대교구 김영국 요셉 신부 -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당신이 그토록 타오르기를 바라는 ‘불’, 그리고 당신을 그토록 짓누르는 ‘세례’와 연관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는 형식적인 물의 세례가 아니라, 당신의 수난과 죽음으로 완성되는 참된 정화의 세례입니다. 이 불은 온갖 죄의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떨쳐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심판의 불입니다.



마중물

17세기 어느 수녀의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 버릴 것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 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시오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49. 예수님께서 갓세마니 동산에서 고뇌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미리 맛보신 새로운 계약의 잔을 갓세마니의 고뇌 중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십시오”(필리 2,8) 아버지의 손에서 다시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마태 26,39).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 대한 인간적 공포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성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성에는 죽음의 원인인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성은 “생명의 영도자”, “살아 있는 자”의 신적 위격이 취하신 인성입니다. 당신의 인간적 의지로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1베드 2,24) 당신 죽음을 속량을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12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